일본 컷트 채소류 동향분석

오사카aT센터 단신 32호 (2014. 9. 30)

컷트 채소류 시장 현황

● **일본 컷트 채소류 제조시장 규모는 연간 약 1,330억엔, 소매판매시장규모는 연간 1,900억엔[1] 규모를 보이고 있음**

- 일본의 저출산, 고령화, 단신세대 증가 등을 배경으로 나카쇼쿠(中食)·소자이(惣菜) 시장은 '12년 기준 9조엔 규모로 전체 식품시장 73조엔의 12%를 차지하고 있음

※ 나카쇼쿠·소자이 시장 : 나카쇼쿠는 외식과 가정식의 중간 형태로 가정 외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먹는 식사형태를 말하며, 소자이는 간편조리 및 반가공 반찬류를 말함

- 컷트 채소류 소비는 나카쇼쿠·소자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(신선 채소류 시장은 감소를 보이지만) 증가를 보이고 있음
- 인스턴트 커피 시장과 동등한 규모이며 양판점, 편의점을 중심으로 매장면적 증가 추세

컷트 채소류 동향

● **컷트 채소류 제조 동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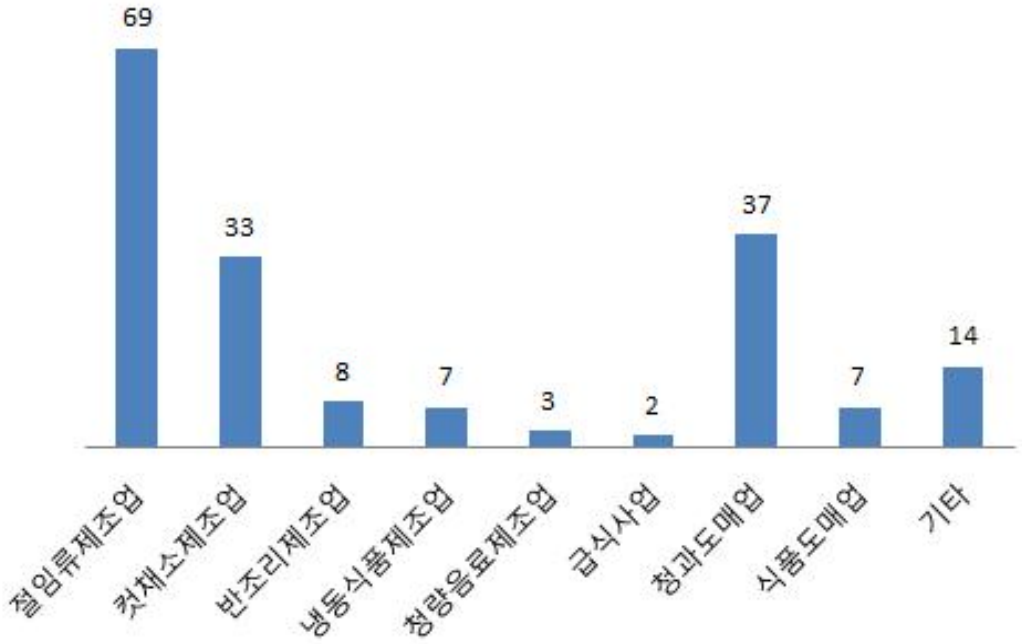
- 일본산 가공·업무용 채소류 주요 수요처는 절임류 제조업, 컷트 채소류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, 농가 직접구매가 90%를 차지하고 있음
- 일본산 가공·업무용 채소류 주요 수요처는 절임류 제조업체가 38.3%, 컷트 채소류 제조업 18.3%로 가장 많게 나타남

---

1) 인스턴트 커피 시장규모와 동일한 규모

- 가공업무용 채소류 구매방법은 농가 직접구매가 89.4%, 도매시장을 통한 상대거래가 10.6%로 나타남

<가공업무용 채소 수요 현황>



※ 일본 독립행정법인농축산업진흥기구가 337 과채류 관련 사업자에게 최근 1년간 과채류 사용에 대해 조사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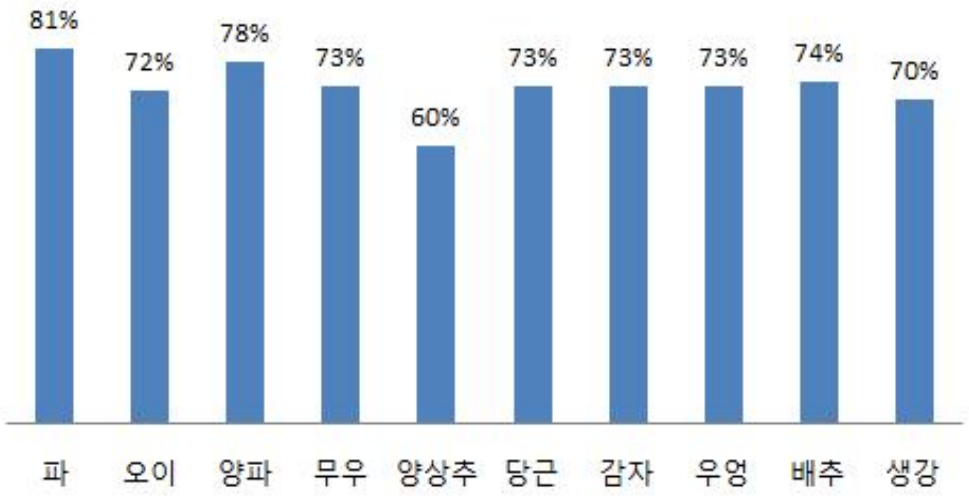
- 컷트 채소류 원료는 양배추가 가장 많은 30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양파가 17.2%, 무 14.3%, 양상추 12.1%를 차지하고 있음

<원료사용 현황>

	양배추	양파	무	양상추	당근	감자	파	우엉	배추	생강	기타
사용비율	30.7%	17.2%	14.3%	12.1%	7.0%	5.5%	3.6%	2.8%	2.4%	1.8%	2.6%

- 원료 손실율은 평균 70%, 파 80%, 양상추 60%

<손실율>



● **일본산 채소류 구매 시 문제점**

- 일본산 채소류 구입시 문제점으로는 정시정량 공급 31.6%, 가격변동 29.9%, 고가격 22.6%, 물량의 확보 14.7%로 **정시정량 공급과 가격변동, 높은 가격에 문제점**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일본산 채소류 사용 시 품질규격·관리상 문제점 및 과제로는 규격·크기가 40.9%, 가공손실 22.0%, 품질·위생관리 16.5%, 가공 적적성 9.8%, 원산지 추척 6.7%로 나타났음

컷트 채소류 소비 동향

● **컷트 채소류 주요 판매처는 소매유통업 37.1%, 반가공업체 14.4%, 외식사업체 24.5%, 급식사업체 10.0% 등의 구성을 보임**

- 소매유통업 중 양판점 27.9%로 가장 높으며, 생협 2.8%, 편의점 6.4%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

<컷트 채소류 판매처 현황>

	양판점	생협	편의점	반가공업체	외식사업체	급식사업체	기타
판매처	27.9%	2.8%	6.4%	14.4%	24.5%	10.0%	14.0

※ 금액기준

컷트 채소류 소비동향

- 컷트 채소류 구입은 1개월 1회 이상 구입빈도가 50% 이상이며, 주 1~2회 구입빈도가 18.3%를 보이고 있음
- 연령대별 구입빈도가 높게 나타난 비율을 보면, 20대의 16.5%가 1개월 1회 구입, 30대의 21.1%가 주 1~2회 구입, 40대의 38.7%가 주 1~2회 구입, 50대의 19.8%가 주 1~2회 구입, 60대의 17.7%가 주 1~2회 구입을 보이며, 20대를 제외 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 1~2회 구입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임

< 컷트 채소류 구입비율>

		거의 매일	주 3-4회	주 1-2회	1개월 2-3회	1개월 1회	2,3개월 1회	6개월 1회	기타
컷트채소 구입빈도		0.6	2.7	18.3	17.7	12.6	9.9	6.0	32.2
연령대별 소비현황	20~29	0.6	2.2	17.1	18.0	16.5	13.4	7.1	25.1
	30~39	0.3	1.8	21.1	16.8	14.1	9.5	7.3	29.1
	40~49	0.9	18.1	18.7	15.4	8.7	6.0	6.6	25.6
	50~59	-	1.5	19.8	17.4	7.5	10.8	4.5	38.5
	60~69	1.2	5.5	17.7	17.7	9.8	7.3	5.2	35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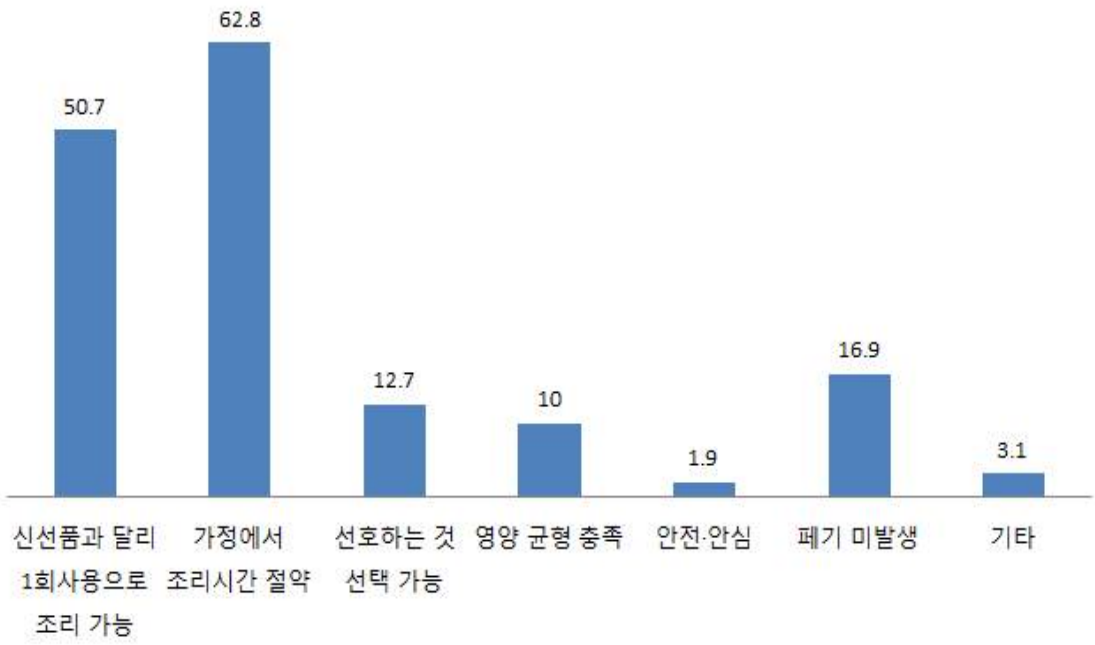
- 컷트 채소류 구입 시 1품당 가격은 100~200엔이 55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100엔 미만이 19.4%로 나타났음

<컷트 채소류 구입 시 1품당 가격>

	100엔미만	100~200엔	200~300엔	300~400엔	400~500엔	500엔이상	기타
간편채소 구입 시 1품당 가격	19.4	55.9	16.2	3.19	1.3	0.7	3.4

- 컷트 채소를 구입하는 이유로는 '가정에서의 조리시간 절약'이 62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신선채소와는 달리 1회 사용으로 조리가능'하다는 편리성이 50.7%로 나타났음

<컷트 채소류 구입이유>



컷트 채소류 수입산 사용 현황

- 컷트 채소류 중 수입 원료는 양파가 52.1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생강 13.4%, 당근 8.2%, 양상추 6.2%를 차지하고 있음

<수입원료 사용 비율>

	양파	생강	당근	양상추	파	기타
수입원료 비율	52.1%	13.4%	8.2%	6.2%	5.3%	14.8%

- 시금치, 고구마는 100%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으며, **일본산 사용비율이 낮은 품목은 양파, 당근** 등으로 나타남

<과채류 가공/업무용 품목별 사용비율>

품목	90% 이상	50~80%	40%이하	모름
양배추	87.9	10.3	1.7	-
무우	98.2	1.8	-	-
양파	62.5	32.5	5.0	-
배추	97.4	2.6	-	-
오이	86.8	7.9	2.6	2.6
양상추	79.3	20.7	-	-
당근	66.7	19.0	14.3	-
가지	89.5	5.3	5.3	-
시금치	100.0	-	-	-
토마토	80.0	10.0	10.0	-
고구마	100.0	-	-	-

※ 일본 독립행정법인농축산업진흥기구가 337 과채류 관련 사업자에게 최근 1년간 과채류 사용에 대해 조사 실시를 통해 본 품목별 일본산 사용비율

^|^ŀ점

- **일본 컷트 채소류 원료 시장의 문제점은 불안정한 공급, 가격변동과 수입산과 비교하여 높은 가격에 있음으로, 안정적이며 적정 가격 공급 노력을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됨**
  - 일본의 컷트 채소류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양파, 당근 등의 품목에 대한 원료 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
  - 일본과 근거리인 점을 살려 컷트 채소류 완성품 공급을 위한 생산 및 물류체계 구축 필요

※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'2013년도 냉동 채소 등 수요 실태조사' 참고

[문의 : 오사카aT센터 유정열 / yjy@atcenter.or.jp]